북스

Books

불면증 환자의 칠흑 같은 밤 이야기

삶은 또 다른 전쟁 … 이라크 전쟁 덫에 걸린 부시 행정부에 '일침'

어둠 속의 남자

폴 오스터 지음·이종인 옮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세련되면서도 감성적인 문체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아 온 폴 오스터(61)의 최신 소설 '어둠 속의 남자(Man in the Dark)'가 완역되어 나왔다.

지난 달 말 미국에서 출간된 이 소설은 폴 오스터의 기존 작품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야기속의 이야기들'이라는 오스터 특유의 기법이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작품이다.

일흔 두 살의 은퇴한 도서 비평가 브릴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는 밤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로움과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가 만들어 내는 이야기 속 미국은 내전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미국이되 9·11이 일어나지 않은 미국, 이라크가 아닌 국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또 하나의 미국이다. 브릴의 머릿속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자신과 이혼한 딸, 남자 친구가 죽은 손녀가 안고 있는 상처와 죄책감이 드러난다.

철저하게 참혹한 과거를 가진 일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이번 소설은 일단 구성부터 독특하다. 이 소설은 주인공 브릴과 그가 만들어 내는 이야기 속 주인공 브릭. 그리고 그의 과부 딸과 손녀 이야기가 교차되며 진행되는 메타 소설 형식이다.

마술사로 생계를 이어 가며 평범하게 살던 브릭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전쟁의 한복판에 떨어져 있다. 그 전쟁의 무대는 이라크도 아프가니스탄도 아닌 바로 미국이다. 독립파와 연방파 두 갈래로 갈려서 내전을 벌이는 미국의 모습에 그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곧 이 모든 것이 브릴이란 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야기의 창조자인 브릴을 죽이는 것이며, 바로 자신이 그를 죽여야 한다는 지령을 받는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중간 중간 브릴은 영화광인 손녀 카티아와 대화를 나누며 과거를 회상하기도 한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미국의 내전은 브릴 가족의 현실과 맞닿아 삶이란 또 다른 전쟁임을 보여준다. 서로 다르면서도 연결고리가 있는 브릴과 브릭의 이야기속에서 미국의 부조리한 현실과 현 정권을 향한 오스터의 비판적 메시지를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결국 브릴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자신이 만든 인물 모두를 잔혹하게 죽여 버리는 것으로 끝내 버린다.

특히 마지막에 드러나는 충격적 결말, 즉 브릴의 손녀 카티아의 남자 친구 타이터스가 이라크에서 살해당하고, 그 장면을 비디오로 볼 수밖에 없었던 가족의 비극은 이라크 전쟁이라는 덫에 걸려 있는 미국의 한 단면으로, 이런 끔찍한 장면을 전례 없이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듯하다.

소설은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야기하기' 소설 특유의 자기 치유 기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탁월한 이야기꾼 오스터의 진면목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독자들은 소설 속 이야기를 읽어 가면서 부조리한 세상의 처참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삶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라는 역설적 인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 척박한 세상의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는 위안을 얻게 된다.

폴 오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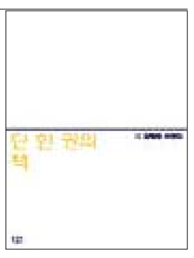
이 소설은 영화 '도쿄이야기'를 논평하면서 과부 며느리를 위로하는 시아버지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 그 말은 주인공 브릴이 자신의 딸 미리엄과 손녀 딸 카티아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작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 괴상한 세상은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로 끝나는 이 소설을 통해 오스터는 이런 후렴구를 떠올리게 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난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 〈열린책들·9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비평이란 '단 한 권의 책'을 찾는 여정"

단 한 권의 책

김형중 비평집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단 한 권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인 책'이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세상에서 가장 방대한,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지식을 담은, 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할, 모든 것이면서 하나인 책이 있다면 어처구니없이 두렵고 또 행복하지 않을까.

문학평론가인 김형중 조선대 교수에게 비평이란 "존재하지 않은 그 '단 한 권의 책'을 찾는 무모한 여정"이다. 그는 자신의 세 번째 비평집인 '단 한 권의 책'의 글 스물두 편을 통해 '작가가 아무리 각성하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자기 관리에 충실해서 좋은 작품을 써내도 독자는 문학으로 돌아오지 않고, 영화관은 북새통이지만 서점들은 곳곳에서 문은 닫는' 문학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평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단 말만 되풀이할 수 없기에" 읽고 또 읽어야만 하는 비평가의 치열한 여정을 보여준다.

문학을 살릴 수 있는 방정식은, 문학이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는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찾아다녀야 할 뿐'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길은 없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찾다 보면 한발 한발 길이 되고 지도가 되리란 믿음에서 "기어라, 비평!"이라고 이 시대의 비평에 주문을 건다.

저자는 모두 4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이렇듯 2000년대 한국문학이 당면한 현실과 다양한 시도를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 비평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이어 제20회 소천 이헌구 비평문학상 수상작인 '단 한 권의 책-김연수,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을 비롯한 김중혁, 김태용, 조선희, 박형서, 은희경, 전경린, 김경욱, 임철우 등에 대한 작가론과 작품론을 수록했다.

이밖에 '외출' '서편제' '결혼은, 미친 짓이다' 등 영화와 문학의 소통 가능성을 모색한 세 편의 글과 함께 현재 한국문학이 직면한 과제와 흐름을 분석한 글도 실었다.

김형중은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조선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0년 문학동네 신인상 평론부문에 당선돼 등단했으며, '켄타우로스의 비평' '변장한 유토피아' 등 평론집이 있다. 작품을 일거에 꿰뚫는 힘 있는 소설 해설로 이 시대 가장 역량 있는 평론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문학과 지성사·1만5천 원〉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CSI' 범죄과학 소설 '데드맨 플라이' 출간

수사관들의 활약상을 다룬 미국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가 인기다. 최첨단 수사 기법들이 소개되면서 시청자들의 법의학 상식도 풍부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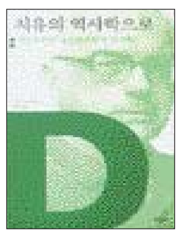
'CSI 과학수사대'에 영감을 준 범죄과학소설 '스카페타 시리즈'의 12번째 작품 '데드맨 플라이'가 출간됐다. '스카페타 시리즈'는 시체안치소와 범죄 현장을 무대로 활약하는 여자 법의관 '케이 스카페타'의 활약을 그린 법의학 스릴러로 1991년 첫 작품 '법의관'(Postmortem)이 출간된 이후 전세계에 1억부가 넘게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작품은 법의학자 스카페타가 성적 도착증을 가진 연쇄살인마 형제와 지능 대결을 벌이는 과정을 그렸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3천원〉

/이은미기자 em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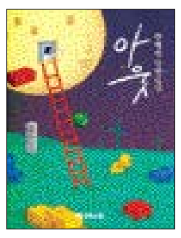
새책



▲치유의 역사학으로=미국 코넬대 '비평과 이론학교' 원장을 역임한 도미니크 라카프라의 역사서. 9·11 테러와 같은 트라우마적 사건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재설정하는 전이 과정을 통해 이들 사건을 성찰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한다. 〈푸른역사·2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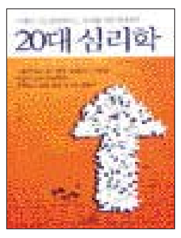
▲울보 하야오=융의 분석심리학을 최초로 일본에 소개한 심리학자이자 세 차례 문화청 장관을 지낸 가와이 하야오의 자전소설. 일본의 군국주의 광풍이 몰아쳤던 1930년대 유년기를 보냈던 하야오가 어린시절을 돌아보며 국가의 억압으로 인해 왜곡된 심성을 갖고 살아야 했던 동시대인의 아픔을 살폈다. 〈뜨인돌·1만원〉

▲광휘의 속사임=정현종 시인의 아홉번째 시집. 제1회 미당문학상 수상작을 표제로 한 이 시집은 지난 2003년에 나온 '견딜 수 없네' 이후 5년 동안 쓴 시 60편을 묶었다. 연세대 교수직을 퇴임한 뒤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며 틈틈이 쓴 시편들이 담겼다. 〈문학과 지성사·7천원〉



▲아웃=6회 문학수첩작가상을 수상한 주영선씨의 장편소설. 폐쇄적인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이해 타산적인 사람들의 음모와 폭력 등을 다뤘다. 다양한 삶의 모습의 이면에 감춰진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문학수첩·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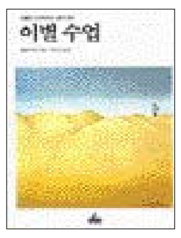
▲조선의 시지프스들=서자의 신분을 뛰어 넘었던 조선인들의 인생역정을 소개했다. 노비였지만 주변의 멸시를 이겨내고 글공부에 매달려 과거에 급제하고 한성부 판윤과 형조 판서까지 지낸 조선 중종 때의 반석평 등의 이야기가 담겼다. 〈청목상·1만9천원〉



▲20대의 심리학=심리학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조언하는 대중 심리서.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가 다양한 심리 상태를 소개한다. 완전한 성인이 되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인 20대에게 성공적인 인생설계를 위한 지침을 일러준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1천원〉

▲겨울 베짱이=스페인의 순례여행지 '산티아고 가는 길'에 대한 화가 남궁문의 겨울 여행기. 번잡한 계절을 피해 한적한 겨울철에 떠나는 색다른 여정이 작가가 제작한 그림, 풍경사진들과 함께 전개된다. 〈조형교육·1만5천원〉

▲사랑하기 위한 일곱번의 시도=남녀간의 사랑에 관한 스물일곱 편의 짧은 이야기를 묶은 독일 막심 빌러의 소설집. 도시에 사는 다양한 국적의 30~40대 남녀를 등장시킨 이야기들은 대부분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어긋나는 사랑을 담고 있다. 〈학고재·9천800원〉



▲이별 수업=심리치료사 겸 상담가인 폴라 다시가 죽음과 상실, 이별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과의 사연과 이들이 상담을 통해 치유되어가는 과정을 소개한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의 모리 교수와의 저자의 만남 과정도 소개된다. 〈청림출판·9천800원〉

9人의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알짜배기"

법원경매전문도우미

대 표 362-6001, 무료상담 080-090-4989

근린상가-화순읍 삼천리 대지2589㎡ 건물522㎡ 감정가 7억7천 최저가 2억7천(도시계획 시설도로 저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화순군 화순읍(서라 4차아파트) 79㎡감정가 4천4백만 최저가 2천7백만

아파트

구	소재지	명칭	면적㎡	감정가	최저가
서구	화정동	삼익	79	5천8백	4천7백6십
	금호동	중흥	79	9천3백	6천5백
	화정동	호반	79	7천2백	5천
	치평동	금호대우	79	8천8백	6천1백6십
	풍암동	현대	79	8천	5천6백
	금호동	주은	112	8천4백	5천8백8십
	풍암동	모아	79	8천4백	5천8백8십
	매월동	스위트홈리	112	1억4천	9천8백
	금호동	호반	112	1억1천	7천7백
남구	진월동	아남	112	1억4천	9천8백
	주월동	신천그린	112	7천5백	5천2백8십
	봉선동	금호타운	151	2억	1억4천
	봉선동	명지	79	4천7백	3천2백9십
	봉선동	무등파크	112	1억1천5백	8천
광산구	선창동	현대홈타운	112	1억5천8백	1억1천
	월계동	동부	119	1억3천	9천1백
	소촌동	서라3차	79	5천3백	3천7백
	우산동	시영1단지	69	4천8백	3천1백
	운남동	남양	69	9천	6천3백
	운남동	주공2단지	53	5천4백	3천7백
북구	일곡동	대우	73	8천	5천6백
	용봉동	한신	79	5천5백	3천2백5십
	삼각동	삼익	79	7천5백	5천2백5십
	문흥동	우성	119	8천7백	6천
	동림동	무등타운	112	9천8백	6천8백
	일곡동	롯데	142	1억9천	1억3천3백
	오치동	무등	109	8천	5천6백
	연제동	광명그린	79	4천6백	3천2백
	신용동	용두주공	69	6천	4천2백
	오치동	공간	79	5천3백	3천7백
	두암동	미리보	112	8천3백	5천8백
	운암동	나산	168	1억9천	1억3천3백
동구	운림동	보라빌라	155	1억9천	1억3천3백
	용산동	호반	79	5천1백	3천5백
	학동	삼익세라믹	151	1억6천	1억1천2백
나주	성북동	성북주공	53	2천8백	1천9백
화순	화순읍	서라4차	79	4천7백	3천2백

토지

기업도시에 투자하세요

구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무안	현경면	전	3190	3천9백	2천7백
	현경면(비대인접)	전	2022	2천7백	1천8백9십
	망운면(비대인접)	전	4876	9천8백	6천8백6십
	망운면	답	3173	4천8백	3천3백

유찰 안됨물건 (투자수익보장)

구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담양	대전면 성산리	전	1064	3천1백	3천1백
	고서면 산덕리	답	2106	3천2백	3천2백
	금성면 대곡리	전(관리지역)	1779	3천2백	3천2백
나주	봉황면 송현리	답(관리지역)	2678	6천4백	6천4백
	[illegible]	답	3000	4천5백	4천5백
	금천면 오강리	답(관리지역)	2182	4천9백	4천9백
화순	화순읍 서태리	답(계획관리)	1137	2천7백	2천7백
함평	월야면	전	1069	3천1백	2천7백

토지

구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illegible]	전	1095	6억7천	4억8천
	신월동	답	3289	3억5천8백	2억5천
	복룡동	답	2311	1억5천2백	1억6백
	송정동	전	641	1억1천	7천7백
	두정동	답	2486	4천4백	3천1백
북구	생용동	답	5451	5억7천	4억
나주	다시면	임야	4457	7백5십	4백2십
	평산동	답	2415	3천7백	2천5백
	봉황면	전	898	1천1백	7백6십
	남평읍[illegible]	전	2469	6천7백	4천6백
화순	도곡면	임야	50702	1억2천6백	8천8백
	이서면	전	9917	4천5백	3천1백
	춘양면	답	5301	6천5백	4천5백
장성	황룡면	답	2013	2천8백	1천9백
	북이면(관리지역)	답	2489	3천	2천1백
	동화면	전	2179	1천9백	1천3백
함평	함평읍	전	3194	2천1백	1천4백
	나산	전	2363	1천8백	1천2백
	월야면	답	1130	9백7십	6백5십
담양	담양읍	답	3095	4천8백	3천2백
	남면	답	2701	2천	1천4백
	고서면	답	2010	2천6백	1천4백
	봉산면	전	1293	2천	1천

근린상가/근린주택

구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서구	유촌동	202/441	3억1천	2억1천6백
	쌍촌동	246/406	4억	2억8천
	화정동	169/523	3억9천2백	2억1천9백
	금호동	216/499	4억3천3백	2억4천2백
	농성동	96/179	1억7천9백	1억2천4백
남구	봉선동	212/307	1억9천1백	1억3천4백
북구	유동	166/592	2억9천2백	2억
	중흥동	대/175	2억8천	1억7천4백
	두암동	187/346	2억4천3백	1억7천
	일곡동	212/439	2억8천9백	2억
	문흥동	190/328	2억1천6백	1억5천
	삼각동	189/148	1억5천2백	1억7백
	용봉동	429/816	7억	4억9천
광산구	우산동[illegible]	509/200	2억4천	1억6천
화순	화순읍	265/709	6억3천7백	4억4천6백

주택

구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북구	임동	473/245	1억8천3백	1억2천8백
	오치동	173/190	1억2천3백	6천8백
	두암동	131/107	9천1백	4천
	중흥동	159/173	1억2천	8천3백
	신안동[illegible]	346/161	1억5천3백	1억6백
	우산동	189/94	9천8백	4천3백
동구	지산동	175/79	9천1백	6천4백
	학동	221/124	1억4천1백	7천9백
	동명동	165/70	1억2백	7천1백
서구	화정동	143/166	1억2천9백	8천5백
	농성동	139/142	1억5백	5천8백
	쌍촌동	240/262	1억7천	1억1천8백
남구	백운동	128/101	8천5백	5천9백
	월산동	228/155	1억2천7백	7천
	화장동	579/107	8천4백	5천8백
광산구	두암동	909/772	1억6백	7천5백
나주	보산동	1623/128	8천	4천4백
화순	능주면	638/224	9천7백	2천6백
	동복면	1238/177	5천1백	3천5백

한마음법률경매(주)
■ 공인중개사 전문상담 (062) 361-6014
■ 이 현 숙 010-6415-2680

금당부동산

☎ (062)223-7400 핸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가 70%이하

- ◉농성동 준주거200평 공시가 9억2천 매도6억4천
- ◉임동71평 공시가1억7천 상가원룸적합 1억2천
- ◉봉선동 소방도로 대지45 건평103 매도1억5천
- ◉임동 상업지 123평 원룸,다세대 적합 대출 2억 공시가 3억2천 매도 2억3천
- ◉신안동 나대지 595㎡(180평) 다세대, 원룸적합 감정가 4억7천 매도 3억천
- ◉광산구 우산동 대지 185 건평 624 전세 6400만원 월950 담보 4억3천 매도 9억5천
-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건너 대지168㎡ 4층 건물 156평 공시지가 3억 3300 매도3억5천
- ◉충장로 5가 62평 공시지가 4억6천 매도3억천
- ◉북구 우산동 집합 건물중의 4층일부 95평. 현재는 독서실 운영중임 작년 매입가는 4억7500만원 담보 2억 매도 3억2천
- ◉신안동 상업지 93평 공시가 3억2천 매도 2억 3500

감정가이하

- ◉대인동 대지100 건평367 노래방·PC방 원룸·투룸 18개와 주택 45평 법인이 적합 8억3천
- ◉풍향동 주택과 여관 대지108 건평 138 주택 4채는 6천에 임대 대출1억 매도 1억9500
- ◉수기동 버스도로 대지33 건평118 공시가2억 2,3,4층은 공실 현재는 전세6천 매도2억5천
- ◉대인동 버스도로 4층건물 대지23 건평77평 3층은 공실 1억6천5백
- ◉중흥동 현대 백화점 건너 4층 건물 대지 332㎡(100평) 공시지가 4억 매도 3억7천
- ◉금남로 5가 목욕탕 340평 헬스시설 완비되었고 임대나 교환도 가능 6억2천
- ◉동명동 상업지역 131㎡(40평) 공시지가 1억800 담보 4천 매도9500만원
- ◉화순읍 4차선 도로변 나대지 1037㎡(314평)공시지가5억9100 매도 6억
- ◉화순읍 도로변 잡종지 3254㎡ (984평) 주유소와 주택있고 공시지가 10억8천 매도11억

투 자

- ◉송정동 나대지 1085㎡(330평)창고, 다세대등 적합 평당 65만원(2억2천)
-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관리지역임야2800평 복지시설등적합 3억2천
- ◉장성군 삼계면 서창주거지 989평 1억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 대덕터널부근 관리지역 임야 5455평 복지시설, 종교시설 적합2억 3천
- ◉동구 소태동 2차선도로 439평 공장, 창고, 복지시설등 적합 대출1억9천 매도 2억3천
- ◉장례식장 허가난곳 나주시 삼도동 1250평 건평 500평 허가났음 6억2천
- ◉담양 전원주택지 개발된곳. 고속도로 담양 톨게이트부근 2150평 광주에서 15분거리 3억
- ◉원룸부지 남구 서동 광주공원 부근 143평 나대지임 은행1억 공시지가에 매도 1억6500만원

매도·교환

- ◉대인동 2층 상가주택 대지 27 건평 44 리모델링 했음 담보 3천 매도9천
- ◉명당 전원주택지 곡성읍 서계리 광주에서20분 대지483평 오피스텔이파트, 상가와교환 6천만원
- ◉강진군 군동면 녹차밭6천평 포함한 밭18,000평 건물과 교환 5억8천
- ◉구례군 섬진강부근 땅 38,425평 수목원,팬션,종교시설,약초재배적합 주택있고 6억5천
- ◉시골주택 화순 능주면 소재지 땅 101평 주택은 수리해야함 매도 1900만원
- ◉금남로 5가 대지 34평 2,3층은 노래방 4층은 주택 2,3,4층은 공실임 1층은 전세6천 매도 4억
-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경관좋은 관리지역 1950평 팬션개발등적합 상가와 교환 8억5천

이전만 해갈 물건

- ◉신안동 대지75 건평 293평 5층 건물 2억9천
- ◉북구 우산동 대지70 건평 150평 감정3억5천 전세 7300은 내주어야하고 대출 1억9천 매도700
- ◉충장로 5가 대지206㎡(62평) 전세9700 월150 대출4억 공시가 5억8200 매도 천만원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위치:화정동 세무소아래

수익성 최고 원룸, 전, 답

- 서구 풍암동/대지 210㎡/4F/원룸/보증금 8800만원/월440만원
- 서구 금호동/대지 230㎡/3F/안집/보증금 3천/월200만원
- 광산구 연산동/전/1354㎡/매가4900만원
- 광산구 연산동/전/3303㎡/2억5천
- 광산구 고룡동/전/925㎡/7천만원
- 광산구 우산동/답/3000㎡/5억5천
- 서구 세하동/도로접전/2642㎡/5억6천만원
- 서구 쌍촌동/대지/600㎡/4억

수익성 최고 상가, 주택 상가건물

- 서구 화정동/대지 350㎡/건평1320㎡/17억/보증금 4억/월900만원
- 서구 벽진동/대지 221㎡/단층건평66㎡/매가1억
- 서구 쌍촌동/대지 160㎡/구한옥1동/매가7천
- 서구 쌍촌동/대지 350㎡/2F/건평165㎡/매가 2억6천5백만원
- 서구 쌍촌동/대지 859㎡/매가 4억6천800만원
- 서구 매월동/대지 1123㎡/건평 198㎡/6억5천
- 서구 세하동/대지 337㎡/구한옥1동/매가 1억2천
- 서구 세하동/대지 480㎡/구건물1동/매가 1억7천만원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건물 수시접수합니다.

※ 불안한 물가상승, 투자할 곳은 부동산 뿐 입니다 ※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단기간에 최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지면장 전체 게재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